

전남도, 지역 특화형 생활인구 늘리기로 활력 높인다

목포·구례·강진·무안·진도 등 5곳 선정 3억6000만원 투입...재방문·정착 등 유도

전남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체류·관계·재방문 중심의 새로운 인구정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을 보완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와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군별 자원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생활인구 모델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3억6000만원 규모로, 도비 1억8000만원과 시·군비 2억5200만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사업은 목포시 '달리며 즐기는 반값여행, 목포 런트립(Run Trip)', 구례군 '도시민 유입부터 정착까지 귀농귀촌 4

-STEP 리빙스테이', 강진군 '강진품에(愛) 살아볼래(來)', 무안군 '무안황토곶별랜드 생활인구 증대사업', 진도군 '일단 한번 진도나가기!(1박 2일 진도 빼기)'다. 사업 유형도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했다. 목포시는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체류형 콘텐츠를 통해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고, 구례군은 귀농·귀촌 체험과 지역 정착을 연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진군은 지역 체험과 주민 교류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모델을 추진하며, 무안군은 가족 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진도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콘텐츠 확산을 통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사업을 통해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재방문과 정주 전환

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비서관장은 "생활인구는 단순 방문객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고 다시 찾게 만드는 지역 활력의 핵심 축"이라며 "전남·광주 통합 생활권과 연계해 체류형·관계형 인구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우수 모델은 전 시군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백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영유아시설 등 45건 대상 노로바이러스 검사 결과 '안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식품제조업 지하수와 영유아시설 환경검체 등 45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 식품안전과 및 5개 자치구 위생 부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감시망을 기존 지하수 중심에서 유통 검체와 영·유아시설까지 대폭 넓혔으며, 노로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맞춰 상·하반기로 나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검사는 식품제조업체·집단급식소 등 12개 시설의 식품 제조용 지하수 12건,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10곳의 환경 검체(분고리, 장난감, 수도꼭지 등) 30건, 광주지역 유통 배수검체 3건 등 총 4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지하수를 포함한 45건 시료 전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 식품 제조·유통 과정과 영유아 보육환경이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점검은 바이러스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시설 10곳과 유통 검체 3건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즉각 자치구와 협력해 시설 청소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불검출이 확인될 때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례에 참석해 '정례조례로 돌아보는 민선 8기의 여정'을 주제로 민선 8기 4년간의 변화와 광주 미래가치를 공유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 "변화 파도 타고 넘어 빛나는 광주로"

민선 8기 마지막 정례조례서 4년간 여정 소회

총 38회 개최...의례적 행사 벗고 참여·소통·미래가치 공유 구두방 사장 이야기·연주회·국회서...광주미래 함께 그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광주는 큰 파도를 만들어 올라왔다. 먼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파도를 타고 가야 한다"며 "직원들도, 시장도, 시민도 이 파도에서 내리지 말고 함께 이어가자"고 말했다.

강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마지막 정례조례에서 "우리 스스로를 믿고 파도를 따라가면 변화의 파도는 반드시 우리 자신과 광주를 빛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격려했다.

이날 정례조례는 500여 공직자들이 '정례조례로 돌아보는 민선 8기의 여정'을 주제로, 민선 8기 4년간의 변화와 광주의 미래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 8기 광주시는 단순한 업무 전달이 아닌 의례적 행사 중심이 아닌 시장님께 공정한 질문(2022년 7월)을 주제로 한 첫 정례조례를 시작으로 구두방 사장의 이야기(2023년 6월), 열린청사 연주회(2024년 6월), 제주항공 참사 예도-당신결의 광주(2025년 1월), 12·3계엄 1년 광주의 여정(2025년 12월) 등 주제와 참여 중심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정례조례를 총 38회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 같은 4년 간의 여정을 '변화의 파도'로 비유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올라탄 변화의 파도

로 AI·반도체·복합소부장 등 미래산업, 더 단단한 민주주의, 공공형 이전, 대자보 도시, AI영재고·GCC 사관학교·Arm스쿨 등 탄탄한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등을 언급했다.

강 시장은 "공공형 이전은 '덜까'라고 했던 일이 이제는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할 정도로 급진적인 매머드급 파도이고,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광주에 인재가 없어서 기업이 못 온다'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할 큰 파도를 만들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파도를 탄 멋진 여정이 있다. 새로운 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달라지면 안 된다"며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했고, 지난 4년 우리가 지켜온 참여·정의·융합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더 큰 빛나는 광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반도체 공장 광주 유치 전략 모색

정진욱 의원, 8일 시의회서 전략 토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공장(FAB) 광주 유치를 위한 전략 토론회가 오는 8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열린다.

다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를 반도체 도시로 만드는 길을 연다'는 주제로 '왜 반도체도시 광주인가?'에 대한 진지한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산업안보·균형발전·전략·인재 전략 등을 주제로 이어온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 연속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마련한 자리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과 핵심 인프라의 한계를 점검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 가능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반도체 광주'를 주제로 '인재·기술·환경'의 융합을 주제로 '인재·기술·환경'의 융합을 주제로 '거대 대응전략'을, 맹종선 교수가 '거대



정진욱

반도체 공공인프라 확충 기반 지역 인재 양성'을, 전남대 전기공학과 안전수 교수가 'RE100반도체시대, 전력이 곧 일자리'를 주제로 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 안홍삼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과 송재도 전남도 경영학부 교수, 김영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노기술집적센터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광주가 보유한 AI 산업 기반과 미래차·전자산업 생태계, 지역 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 역량, 에너지·전략 인프라 확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통합광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해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모든 사업장 위험성평가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사업장 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산업재해를 원천 차단한다.

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8일 19일까지 전 부서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위험성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대상은 실·단·팀 등 사무

공간 25개소를 비롯해 공공·체육시설 12개소, 임대주택 10개소 등 총 47개 사업장이다. 평가는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며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거 아차사고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KH MEDI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